이 보도자료는 2022. 6. 19.(일) 12:00(2022. 6. 20.자 조간용)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신형식 전화 02-2204-4201	보 도 자 료 2022. 6. 17.(금)

제 목	S금고 고위직이 개입한 380억 원대 금융비리 수사결과 -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수수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**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·경제범죄전담부**(부장검사 민경호)는 'S금고 중앙회 고위직'(피고인 **A**), '금융브로커'(피고인 **B · C**), '대부업자'(피고인 **D**) 등이 관여한 '**S금고를 상대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한 380억 원대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수수' 사건을 직접수사**한 결과, 아래와 같이 **3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**함
  - 피고인 **D**는 『가짜 다이아몬드(큐빅) 또는 감정평가사 아닌 자에게 청탁하여 작성받은 허위 ·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16개 지역 S금고를 기망하여 대출금 약 380억 원을 편취』하여 **구속기소**,

    ※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 **E**는 피고인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여 **불구속기소**
  - 피고인 **B · C**는 『D와 S금고 사이에서 위 대출을 알선하고 D로부터 그 대가로 약 5억 7,000만 원을 수수』하여 **B는 구속기소 · C는 불구속기소**
  - 피고인 **A**는 『B의 청탁을 받고 S금고 중앙회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D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위 대출을 알선하고 B로부터 그 대가로 1억 3,000만 원을 수수』하여 **구속기소**
- **서민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금융비리를 치밀한 계좌추적과 과학적 증거분석을 통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처리함으로써, 건전한 서민금융질서의 회복에 기여**함

1 피고인

- 피고인 A○○(55세, S금고 중앙회 前 ○○본부장, 검찰 직접구속)
- 피고인 B○○(56세, 금융브로커, 검찰 직접구속)
- 피고인 C○○(50세, 금융브로커)
- 피고인 D○○(48세, 대부업체 대표, 검찰 직접구속)
- 피고인 E○○(41세, 대부업체 직원)

2 공소사실 요지

1.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사기

- 피고인 D○○는 2020. 2. ~ 2021. 3. 가짜 다이아몬드(큐빅) 또는 감정평가사 아닌 자에게 청탁하여 작성받은 허위·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대출용도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S금고를 기망하여 대출금 약 380억 원 편취 **[특경법위반(사기), 사기]**
- 피고인 E○○는 위 일시경 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D○○에게 전달 등 **[사기방조]**

2. 금융브로커의 대출알선 명목 불법금품수수

- 피고인 B○○와 피고인 C○○는 공모하여, 2020. 1. ~ 2021. 4. S금고 중앙회 고위직인 A○○를 통해 위 대출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D○○ 등으로부터 약 5억 7,000만 원 수수 **[특경법위반(알선수재)]**

2. S금고 중앙회 고위직-금융브로커 간 불법금품수수 및 공여

- 피고인 A○○는 2020. 6. ~ 2021. 1. B○○의 청탁을 받고 S금고 중앙회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D○○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위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B○○로부터 1억 3,000만 원 수수 **[특경법위반(수재등)]**
- 피고인 B○○은 위 일시경 A○○에게 위 1억 3,000만 원 공여 **[특경법위반(증재등)]**

3 수사 경과

- '21. 6. 16. S금고 前 직원이 피고인 A○○를 고발
  ※ '21. 7. 16. 행안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의뢰
- '21. 12. 1. 당청 조사과 조사 후 검사실에 사건 송치

- ’22. 1. ~ 6. 사무실 등 압수수색, 계좌압수수색, 16개 금고 대출담당 직원 조사, 피고인들 조사 등
  ※ 압수수색에서 ‘가짜 다이아몬드’(큐빅) 등 핵심 증거 확보
- ’22. 6. 14. 피고인 3명(A○○, B○○, D○○) **검찰 직접구속**
- ’22. 6. 17. 피고인 3명 구속기소, 2명 불구속 기소

4 수사 의의

- 이 사건은 **S금고 고위직, 금융브로커, 대부업자 등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**하고, **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이용하여 380억 원대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수수 등**을 저지른 **조직적인 금융비리**임
  - 대부업자는 금융브로커에게, 금융브로커는 S금고 고위직에게 각 금품을 제공하고, S금고 고위직은 대출과정에서 설명회 개최 등 편의를 제공함
  - 이로 인해 **저리로 받은 대출금 약 380억 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되어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**을 취하는 등 ‘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’을 목적으로 하는 **S금고의 설립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**됨
- 서울동부지검은 S금고 고위직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, **적시의 현장 압수수색**을 통해 대부업자가 대출신청시 담보로 제공하여 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‘가짜 다이아몬드’ 등 **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증거인멸을 방지**하고, 자금추적·회계분석,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방법을 통해 다각도로 면밀히 수사하였음
- 위와 같은 **적극적인 직접수사** 결과, **조직적인 금융비리의 전모를 규명**하여, 관련자 5명을 추가 인지하고, **그중 3명을 직접구속하여 기소**하는 등 **관련자들을 모두 엄단**함
- 앞으로도 서울동부지검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**대출사기 또는 불법금품수수 등 중대금융비리 범죄**에 대하여 **엄정하게 대처**하고, **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만전**을 기할 예정임 ▨